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조사와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의 대조 연구

박준석*

1. 머리말

언어 교육자는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함이 언어 에서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언어 교육자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차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법 구조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학습자가 느끼는 모국어와 학습 대상 언어 사이의 문법적인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언어 계통론이나 유형론적인 관점에 의하면, 한국어와 말레이시아어는 동일한 계통의 언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유형론적인 공통점 또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문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어는 문법 형태의 발달보다는 어순 의존적인 특징을 갖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Austronesian Languages Family)에 속하는 언어이다. 반면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Altaic Languages Family)의 특징을 많이 가지는 언어로서, 알타이 어족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언어로 조사나 어미 등과 같은 문법 형태가 발달된 언어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유사한 의미와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조사와 전치사이다. 말레이시아어에는 한국어의 주격, 대격, 속격 등과 같은 문법격을 나타내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의 의미격은 말레이시아어의 전치사에 의해서 유사한 기능과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격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조사와 말레이시아 전치사를 대조 연구하여 한국어 교육 및 학습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조사와 말레이시아어 전치사

2.1. 한국어 조사의 갈래와 특징

한국어 조사는 일반적으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뉠 수 있다. 격 조사는 주격, 목적격(대격), 관형격(속격) 등의 문법격과 장소나 시간, 방향, 도구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격으로 하위 분류될 수 있다.¹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조사의 분류는 기존의 학교 문법이나 이론 문법과는 달리 서술격 조사나 보격 조사를 설정하지 않거나 이들을 별도의 조사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미격 조사에 대한 분류는 기존의 학교문법이나 이론문법에서 사용하던 일반적인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조사의 의미나 의미 관계에 사용되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립국어원 2005; 한재영 외 2008). 본고에서는 기존의 학교 문법이나

*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Malaya.

¹최근에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임동훈(2008), 김용하(2010)을 참조.

이론 문법에서 사용하던 조사의 분류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류 방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특히 의미격 조사의 분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조사의 하위 의미에 기술되는 용어나 의미 자질에 해당되던 개념이므로 조사의 갈래에는 적합하지 않는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형태를 중심으로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에 부사격 조사 불리던 의미격 조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1) 가. 정적 처격(Static locative)

(가) 장소: 에, 에게, 께, 한테.

(나) 시간: 에.

(다) 기준되는 대상이나 단위: 에.

(라) 원인이나 이유: 에.

나. 동적 처격(Dynamic locative): 에서, 서.

다. 여격(Dative): 에, 에게, 께 한테, 더러, 보고.

라. 방향격(Directional): 에, 에게, 께, (으)로.

마. 출격(Source): 에서, 서, 에게서/에게, 한테서/한테.

바. 탈격(Ablative): 에서부터/에서, 에게서부터/에게서, 께서부터/껴서, 한테서부터/한테서, (으)로.

사. 자격격(Function): 에, (으)로서/(으)로.

아. 도구격(Instrumental): 에, (으)로써/(으)로.

(1)은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의미격 조사를 분류한 것으로 의미격 조사의 의미적 대립 관계는 조사의 형태에 의해서도 파악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한국어의 의미격 조사는 중세 한국어의 의미격 조사 ‘- /의, -애/에, - , -스 그 , -에서’ 등에서 발달한 형태이다. 현대 한국어의 의미격 조사는 형태적 기준과 의미 자질에 따라 그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형태에 의한 구분은 정적 처격의 ‘-에’와 동적 처격 ‘-에서’, 여격과 방향격의 ‘-에’와 ‘-에게’, 출격의 ‘-에서’와 ‘-에게서’, 탈격의 ‘-에서부터’와 ‘-에게서부터’가 형태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형태적 구분과 의미 자질로서 ‘-에’와 ‘-에게’, ‘-에서’와 ‘-에게서’, ‘-에서부터’와 ‘-에게서부터’, ‘-(으)로써’와 ‘-(으)로서’ 등이 구분된다.

2.2. 말레이시아어 전치사 분류와 특징

말레이시아어 전치사 목록은 연구자나 저작물에 따라 적게는 20여개에서 많게는 50 여개로 설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말레이시아어의 대표적인 규범 문법서인 “Tatabahasa Dewan”(Nik Safiah Karim et al. 2008)에 제시된 전치사 목록을 토대로 하고, 해당 전치사의 의미는 Nik Safiah Karim(1995)에서 제시된 전치사의 의미를 원용하고자 한다.

(2) di(‘at’, ↔pada)², ke(‘to, for place’, dari~ke, ↔kepada), dari(‘from, for place’,

² 본고에서 사용된 기호는 다음과 같다. 조사나 전치사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립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화살표(↔)로 나타내었으며, 말레이시아어에서 동일한 의미로 묶이는 전치사에 대해서는 중괄호({})로 묶어 표시하였다. 3장에서 교재의 출현 현황을 나타낼 때, 교재에 출현되지 않은 조사에 대해서는 소괄호(())로 안에 넣어 표시하였다. 또한 예문이나 용례에서 제시할 때 나타낸 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의 형태만을 보였지만 설명이나 해설에서 사용된

↔daripada), daripada(‘from, for person’, ↔dari), kepada(‘to’, for person, ↔ke), pada(‘at’, ↔kepada), {untuk(‘for’), bagi(‘for’)}, demi(‘intention’), tentang(‘concerning’), {seperti, bagai, umpama, laksana ‘as, like’}, dengan(‘with’), sejak/semenjak(‘since’), terhadap(‘towards’), akan, oleh(‘by’), {hingga, sampai(‘until’)}, dalam(‘inside’), antara(‘between, among’).

이상에서 제시된 말레이시아어 전치사를 한국어 조사와 의미적으로 대응시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 가. 장소와 시간: di ‘-에, -에서’ [장소, -Animate]
 pada ‘-에’ [시간, -Animate]
 pada ‘-에서’ (동사의 행위가 일어난 장소)
- 나. 출발점: dari ‘-에서, -부터’ [장소/시간, -Animate]
 daripada ‘-에게서’ [+ Animate]
 dari ~ ke ‘-에서/부터 ~ -까지’ [장소/시간, -Animate]
 dari ~ hingga (ke) ‘-부터 ~ -까지’ [시간, -Animate]
 daripada ~ kepada ‘-에게서/(으)로부터 ~ -까지’ [+ Animate]
- 다. 방향이나 목적지: ke ‘-에, -(으)로, -까지’ [장소, -Animate]
 hingga/sampai ‘-까지’ [시간, -Animate]
- 라. 대상: kepada ‘-에게’ [+ Animate]
- 마. 자격: seperti/bagai/umpama/laksana ‘-(으)로서/(으)로’
- 바. 도구: dengan ‘-(으)로써/(으)로’

말레이시아어 전치사 중에서 의미적 대립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에서의 그 기준은 [+Animate], [+Location], [+Time] 등 [+Animate], [+Location], [+Time] 등의 의미에 따라 장소와 시간, 출발점, 방향이나 목적지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질 \ 의미		장소와 시간	출발점	방향이나 목적지	관용어
[-Animate]	[+Location]	di 에/에서	dari 에서	ke 에	dari ~ ke 에서 ~ 에/으로(방향/경로) dari ~ ke 에서 ~ 까지(목적지)
	[+Time]	pada 에	dari 부터	hingga sampai 까지	dari ~ hingga (ke) 부터~ 까지
[+Animate]			daripada 에게서 /한테서	kepada 에게/께/한테 테	daripada ~ kepada 에게서 / 한테서 ~ 까 지

<표 1.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의 의미 관계>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와 한국어 조사의 의미적 대응 관계를 제시하였다. 말레이시아어 전치사가 한국어 조사와는 대응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어휘나 관용구에 의해 나타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4) 가. akan : ‘-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는 작은 따옴표와 줄표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 나. antara: ‘사이에, 중에’.
- 다. dalam: ‘경우에’.
- 라. demi: ‘-을 위해서’, ‘차례로, 차례 차례’.
- 마. oleh: ‘-에 의해서’.
- 바. tentang: ‘-에 대해서’.
- 사. terhadap: ‘-에 대해서’, ‘위해서’.
- 아. untuk/bagi: ‘-을 위해서’, ‘-에 대해서/관해서’.

3. 한국어 교육 교재에 나타난 조사 현황과 분석

본고에서 참고 자료로 선정한 한국어 초급 교재는 총 7권이다. 이 중에서 3권(김정숙 외(2006), 이해영 외(2006), Rou Seung Yoan et al.(2004))은 초급 단계만이 개발된 교재이고, 나머지 4권(고려대 한국어문화연수부 편(1986/2006), 서울대 언어교육원(2000/2007), 연세대 한국어학당 편(1992/2006), Young-Mee Cho et al.(2000))은 초·중·고급의 단계로 개발된 교재 중에서 초급 단계에 해당되는 교재이다. 교재들의 출간 장소에 따라 교재를 살펴보면, 전체 자료 중에서 2권(Young-Mee Cho et al.(2000), Rou Seung Yoan et al.(2004))은 국외에서 발간되었으며 그 중에서 1권(Rou Seung Yoan et al.(2004))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발간된 교재이고, 또 다른 1권(Young-Mee Cho et al.(2000))은 미국에서 발간된 교재이다. 이외의 자료는 국내에서 발간되었다.

3.1. 문법적 조사

초급 교재에 나타나는 문법적 조사는 다음과 같다.

- (5) 가. 주격: 이, 가, 께서, (에서).
- 나. 목적격: 을, 를.
- 다. 관형격: 의; 내, 제.

문법적 조사인 주격, 목적격, 관형격은 모든 교재의 전반부에 나타난다.³ 하지만 동적 처격(Dynamic locative)의 ‘-에서’의 의미가 확장된 형태로 쓰이는, 단체나 기관 등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주어나 주체의 기능으로 나타내는 ‘-에서’는 초급 교재에 나타나지 않는다.

3.2. 의미적 조사

2.1.에서 의미적 조사를 분류한 방식에 따라 초급 교재에서의 의미적 조사의 출현 현황을 보이면 다음 도표와 같다.

- (6) 의미적 조사의 출현 현황

조사의 갈래	전반부	후반부	미출현 형태
--------	-----	-----	--------

³ 본고에서 조사의 출현 현황을 파악한 방법은 초급 교재에서 나타나는 조사의 출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 목록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조사가 해당 교재에서 처음 나타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의 출현 지점을 교재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조사가 전반부에 나타났다는 의미는 해당 조사가 후반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사가 해당 교재에 처음 나타난 곳을 의미할 뿐이다.

속조사 구성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3.3.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명사구를 단순히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8) 가. ‘X+ 접속조사 Y’: 와/과, 하고, (랑/이랑).

나. ‘X+ 접속조사 Y+ 접속조사’: 나/이나, (하며, 며/이며, 다/이다).

접속조사의 구성은 접속조사가 한 번만 통합되는 (8가)의 구성과 동일한 접속조사가 두 번 이상 통합될 수 있는 (8나)가 있다. 초급 교재에서는 (8가)의 ‘-랑/이랑’과 (8나)의 ‘-하며, -며/이며, -다/이다’는 출현되지 않았다.

3.4. 보조사

보조사는 격조사나 접속조사보다 분포가 자유롭고 그 수효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초급 교재에 나타나는 보조사의 수는 한정적이다. 다음은 초급 교재에서 나타나는 보조사 현황이다.

(9) 가. 전반부: 은, 는, 도, 요, 만, 부터, 까지, 마다, (이)나, 대로.

나. 후반부: 밖에, 보다.

교재의 전반부에 나타난 (9가)의 보조사는 교재에서 출현한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대로’는 교재 본문이나 해설에 쓰이지 않고 연습 문제의 지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실 상 초급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조사는 조사끼리의 통합이 가능하며, 의미격 조사에 보조사가 통합되고 마지막에 문법격 조사가 통합되는 게 일반적인 조사의 통합 순서이다. 보조사는 다른 보조사와도 통합될 수 있으며, 보조사끼리 통합될 때는 보조사의 분포 환경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⁴ 다음은 초급 교재에 나타나는 합성 조사의 예이다.

(10) 가. ‘에, 에서, 에게, 까지’+ 은/는

‘에, 로, 한테, 한테서’+ 도

‘에, 에게, 에서’+ 까지

에+ 나

‘으로, 에서, 서’+ 요

나. 만+ 에

다. 은/는+ 요, 에서+ 는+ 요

(10가)는 의미격 조사와 보조사가 통합된 예이고, (11나)는 보조사에 의미격 조사가 통합된 예이고, (11다)는 보조사에 보조사가 통합된 예이거나 의미격 조사에 보조사가 통합된 합성조사에 또다시 보조사가 통합된 예이다.

4. 조사와 전치사의 대조 분석 및 교육 방안

앞장에서 논의된 한국어 조사의 출현 현황과 말레이시아어의 전치사의

⁴보조사의 분포 환경에 대한 제약에 따라 보조사의 통합 순서를 설정한 경우는 임흥빈(1999) 참조.

분류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조사와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의 기능을 대비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격조사	문법격 조사	어순
	의미격 조사	전치사구, 어휘
보조사		
접속조사		접속사

<표 2. 한국어 조사와 말레이시아 조사의 기능 비교>

위 도표에서 한국어 조사에 대응되는 말레이시아어의 문법 장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격조사 중에서 문법격 조사는 말레이시아어에는 격 형태가 없으므로 문장의 어순에 의해 나타난다. 둘째, 의미격 조사와 보조사에 의한 조사구는 말레이시아어의 전치사구나 어휘에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접속조사는 말레이시아어의 접속사에 의해 기능이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문법격 조사와 의미격 조사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어의 전치사와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 및 학습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4.1. 문법격 조사와 전치사

한국어 문법격 조사에 해당되는 말레이시아어 전치사는 없고 문장 내에서 어순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어에서는 문장 내에서의 문장의 필수 성분은 생략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법격 조사를 [\pm Honorific]에 따라 분류하고 대응되는 조사와 형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낮춤말	예삿말		높임말
		자음	모음	
주격	- (제가)	이	가 (내가)	께서
목적격	- (저를)	을	를 (나를)	-
속격	- (제/저의)	의	의 (내/나의)	-

<표 3 [\pm Honorific]에 의한 문법격 조사의 분류>

한국어 격은 문장 내에서 격조사가 나타나야만 격이 실현된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어는 격조사가 존재하지 않고 문장 성분은 어순에 의존해서 나타나므로 한국어 학습자는 격조사를 배우기 전에 문장의 어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조사와 관련된 어순은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SOV), 주어와 서술어(SV), 목적어와 서술어(OV), 부치사와 명사구(NP+ adposition), 관형격과 명사구(Genitive+ NP) 등이 있다.⁵

⁵ 어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서술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어의 서술어는 동사에 국한되지만 한국어에서는 형용사도 서술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어와 말레이시아어와 영어의 서술어 예를 함께 보인 것이다.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사의 음운론적인 교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설명도 부가되어야 한다. 그 후에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임을 보이고 목적어에는 일반적으로 목적격 조사 ‘-을/를’가 실현된다는 설명으로 나아간다.

(11) 가. 철수 가다.

Cheolsu pergi.

나. 철수-가 가다.

Cheolsu pergi.

다. 철수-가 집 가다.

Cheolsu pergi rumah.⁶

라. 철수-가 집-에 가다.

Cheolsu pergi ke rumah.

(11가)는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주어와 자동사 서술어만을 보인 예이고, (11나)는 격조사가 실현된 예로, 행위의 주체에 주격 조사가 통합됨을 설명하기 위한 예이고, (11다)는 주어인 ‘철수’가 동사 ‘가-’가 향하는 장소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순서로 문장을 제시하고 난 후에 학습자들에게 (11다)의 말레이시아어가 적격한 문장인지 비문인지를 묻게 된다. 그리하면 학습자들은 동사 ‘pergi’는 전치사 ‘ke’와 함께 쓰여야함을 인지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어에서는 동사 ‘pergi’와 전치사 ‘ke’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고 대답한다. 이에 (11가)를 제시하면서 말레이시아어 전치사 ‘ke’에 대응될 수 있는 한국어 조사는 ‘-에’이고, 말레이시아어 ‘pergi ke NP’는 한국어에서도 ‘NP-에 가다’ 형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한국어 주격 조사와 자동사 ‘-가’가 쓰인 ‘-에 가다’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12) 가. 좋아해!

Sayang!

나. 너, 좋아해!

(1) 가. 철수-가 가다.

Cheolsu pergi.

‘Cheolsu goes.’

나. 하늘-이 푸르다.

Langit ialah biru.

‘The sky is blue.’

다. 영희-가 학생이다.

Younghui ialah pelajar.

‘Younghui is a student.’

(1가)는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1나)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나 말레이시아어와 영어에서는 be-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형용사는 동사의 보어로 나타난다. (1다)는 명사에 계사 ‘이-’가 통합된 후에 종결어미 ‘-다’가 쓰인 계사 구문이다. 말레이시아어에서는 be-동사 ‘ialah’가 영어에서는 be-동사가 계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⁶ 말레이시아어에서 ‘Cheolsu pergi rumah’는 비문이고 전치사 ‘ke’가 함께 나타나야만 문법적인 문장(‘Cheolsu pergi ke rumah’)이 된다. 본고의 용례에서 비문을 제시된 것은 격조사의 실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다.

- Kamu, sayang!
- 다. 나, 너 좋아해!
Aku sayang kamu!
- 라. 내-가 너 좋아해!
Aku sayang kamu!
- 마. 내-가 너-를 좋아해!
Aku sayang kepadamu/padamu!

(12가)는 타동사만이 나타난 예이고, (12나)는 목적어와 타동사가 함께 실현된 예이다. (12다)는 주어, 목적어, 타동사가 나타난 예이지만 격조사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예이다. (12라)는 주격 조사가 실현된 예이고, (12마)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실현된 예이다. (12마)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어 타동사 ‘sayang’이 목적어를 취할 때, 그 목적어가 [+Animate]이면 전치사 ‘kepada’를 취하는 것처럼 한국어의 타동사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는 것이 말레이시아어와 대응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예이다.

- 가. 나의/내 가방.
Beg saya.
‘My bag’.
- 나. 저의/제 가방.
Beg aku.
‘My bag’.
- 다. 아버님의 가방.
Beg Ayah.
‘Father’s book’.

(13가)는 1인칭 대명사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통합된 관형격 조사구와 명사 ‘가방’의 구성이 영어와 동일한 어순이지만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굴절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관형격 조사만 통합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구어체에서는 ‘나의’보다는 ‘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내’의 낮춤말이 ‘제’임을 보인 예가 (13나)이다. (13다)는 주격 조사 ‘-이/가’나 목적격 조사 ‘-을/를’이 선행 음절의 끝소리에 따라 이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게 속격 조사 ‘-의’는 이형태가 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예이다.

4.2. 의미적 조사와 전치사

말레이시아어의 전치사와 의미적 대립 관계는 <표 4.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의 의미 관계>에서 제시하였듯이 일차적으로 [\pm Animate]에 의해서 구분되며, 이차적으로는 [+Location]과 [+Time]에 의해서 구분된다. 이들의 의미 자질에 의해서 장소와 시간, 출발점과 방향이나 목적지를 표현하는 전치사가 구분되어 나타난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와 한국어 의미적 조사의 의미적 대응 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자질 \ 한국어의 격	치격	여격	출격	탈격	방향격	도구격 / 자격격
-------------	----	----	----	----	-----	-----------

[- Animate]	[+ Time]	에 pada		부터 ⁷ dari		까지 hingga sampai	
	[+ Locatio n]	에서 di		에서 dari	에서부터 (dari)	까지 ke	
		에 di	에				에 ke
					(으)로부 터 (dari)	(으)로 ke	(으)로(써) dengan
[+ Animate]			에게 kepada	에게서 daripada	에게서부 터 (daripada)	에게 ke	으로(서) bagai

<표 5.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와 한국어 의미격 조사의 의미적 대응 관계>

위의 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의미격 조사와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와의 의미적 대응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장소와 시간의 대립 관계이다.

(13) 가. 그는 집에 있다.

Dia ada di/*pada rumah .

‘He is at home.’

나. 파리다는 오후 시간에 낮잠을 잔다.

Faridah tidur pada/*di waktu petang.

‘Faridah sleeps in the afternoon.’

(14)에서 의미격 조사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낼 때 한국어에서는 ‘-에’ 한 가지로 나타나지만, 전치사에서는 (14가)의 ‘di’는 장소를 나타내고 (14나)의 ‘pada’는 시간을 나타내어 장소와 시간이 의미적 대립 관계가 성립되어 대치될 수 없다. (14)의 의미격 조사 ‘-에’는 정적 처격으로 묶일 수 있고 장소와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장소 명사구와 시간 명사구에 별도로 통합되어 나타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장소와 시간이 구분되지만 한국어처럼 정적 처격과 동적 처격이 구분되지는 않는다.

(14) 가. 이나는 쿠알라 룸푸르에 있다/산다/*논다/*잔다.

나. 이나는 쿠알라 룸푸르에서 있다/산다/논다/잔다.

다. Ina ada/tinggal/main/tidur di Kuala Lumpur.

(15가, 나)의 ‘-에’는 후행 동사나 문장의 주체가 정적(static)이거나 역동적(dynamic)인 활동성에 따라 (15가)의 ‘-에’는 정적 처격, (15나)의 ‘-에’는 동적 처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15다)의 전치사 ‘di’는 선행 동사와의 결합에는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에’와 ‘-에서’는 후행 동사의 종류에 따라 처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출격, 방향격이나 목적지의 의미로 나

⁷ ‘부터’와 ‘까지’는 보조사이지만 도표에서 함께 나타내었다. 말레이시아어의 전치사 ‘dari’와 ‘ke’가 관용구로 나타날 때는 ‘dari ~ ke’(‘-에서/부터 ~ -까지’)로 나타나서 장소와 시간을 함께 나타내기도 하고 ‘dari ~ hingga (ke)’(‘-부터 ~ -까지’)로 나타나 시간만을 나타내기도 하여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보조사 ‘부터’와 ‘까지’도 의미격 조사의 논의 중에 포함시킨 것이다.

타나기도 한다.

(15) 가. 그가 쿠알라 룸푸르에서 오다.

Dia datang dari/*daripada Kuala Lumpur.

‘He comes from Kuala Lumpur.’

나. 그가 학교에/까지 오다.

Dia datang ke/*kepada sekolah.

‘He comes to school.’

다. 우리는 그들을 7 시부터 기다렸다.

Kami menunggu mereka dari/*daripada pukul tujuh pagi.

‘We waited for them from seven o'clock.’

라. 연습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Amalan itu diikuti hingga ke zaman ini.

‘The practice is adhered to up to the present time.’

(16가, 나)의 동사 ‘오-’는 결합되는 조사에 따라 (16가)에서는 출격, (16나)에서는 방향격이나 목적지의 의미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말레이시아어에서도 동일한 대응 관계가 나타난다. (16다, 라)는 ‘dari’(‘-에서/부터’)와 ‘ke’(‘-까지’)가 (16가, 나)의 장소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서/부터’와 ‘-까지’에 대응되는 전치사가 ‘sejak/semenjak’과 ‘hingga/sampai’가 더 있다.

(16) 가. 그들은 아버지께서 돌아오신 뒤부터 행복하다.

Mereka gembira sejak/semenjak kepulangan ayah mereka.

‘They are constantly happy since their father's return.’

나. 우리는 지난밤까지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Kami menunggu kepulangannya hingga/sampai larut malam.

‘We waited for his return until late at night.’

(17가)의 ‘sejak/semenjak’은 보조사 ‘-부터’ 뿐만 아니라 탈격의 ‘-에서부터’, ‘-에게서부터/한테서부터’에 대응될 수 있다. (17나)의 ‘hingga/sampai’는 목적지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의 의미로 보조사 ‘-까지’에 대응된다. ‘sejak/semenjak’과 ‘hingga/sampai’가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은 ‘dari’와 ‘ke’와 유사하다. 하지만 장소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간 표현에 한하여 ‘dari ~ hingga (ke)’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dari ~ ke’와 ‘dari ~ hingga (ke)’의 예이다.

(17) 가. 이 버스는 쿠알라 룸푸르에서 페낭 섬까지 간다.

Bas ini pergi dari/*daripada Kuala Lumpur ke Pulau Pinang

‘This bus goes from Kuala Lumpur to Penang Island.’

나. 그 회의는 아침 9 시부터 저녁 9 시까지 계속되었다.

Mesyuarat itu berlangsung dari/*daripada pukul 9:00 ke pukul 11:00 pagi.

‘The meeting lasted from 9:00 a.m. to 9:00 p.m.’

다. 시험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진행되었다.

Ujian itu diadakan dari/*daripada pagi hingga (ke) petang.

‘The test was conducted from morning till evening.’

(18가, 나)의 ‘dari ~ ke’는, (18가)의 장소와 (18나)의 시간에 두루 나타나지만 (18다)의 ‘dari ~ hingga (ke)’는 시간에만 나타난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어의 장소와 시간의 대립 관계를 한국어 조사와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두 번째는 유정성([±Animate])의 유무에 따라 의미의 대립 관계가 나타나는 전치사와 조사를 살펴 볼 수 있다. 전치사 ‘dari’와 ‘ke’가 [-Animate]의 명사와 결합되고 ‘daripada’와 ‘kepada’는 [+Animate]의 명사와 결합된다. 한국어에서는 [±Animate]에 따라 ‘-에’와 ‘-에게’, ‘-에서’와 ‘-에게서’, ‘-에서부터’와 ‘-에게서부터’가 대립되어 나타난다.

(18) 가. 이 종이에 네 이름을 쓰라.

Tulis nama kamu pada kertas ini.

‘Write your name on this piece of paper.’

나. 아흐맛이 그 편지를 줄리아에게 주었다.

Ahmad memberikan surat itu kepada Julia.

‘Ahmad gave the letter to Julia.’

다. 이것은 옛 친구에게서 온 편지이다.

Ini ialah surat daripada/*dari sahabat lama.

‘It is a letter from an old friend.’

라. 선생님에게서/에게서부터 학생까지.

daripada pelajar kepada guru.

‘from the student to the teacher.’

(19가)의 ‘pada’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Animate]일 때 나타나며, (19나)의 ‘kepada’는 [+Animate]일 때 나타나서 조사 ‘-에’와 ‘-에게’에 대응된다. (19다)의 ‘daripada’는 [+Animate]의 명사와 결합되고 ‘-에게서/한테서’에 대응된다. (19라)의 ‘daripada ~ kepada’는, [-Animate]의 ‘dari ~ ke’에 대립되고 ‘-에게서/에게서부터 ~ -까지’에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어에서는 형태적 대립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일정한 형태적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한국어의 도구격 ‘-으로(써)’와 자격격 ‘-으로(서)’에 대응되는 전치사 ‘dengan’과 ‘seperti/bagai/umpama/laksana’이다.

(19) 가. 하싼은 물감으로(써) 초상화를 그렸다.

Hassan melukis potret itu dengan cat air.

‘Hassan painted the portrait with water colours.’

나. 그는 방학 때 웨이트로(서) 일한다.

Dia bekerja sebagai pelayan pada musim cuti.

‘He works as a waiter in the holidays.’

(20 가)는 한국어의 도구격 ‘-(으)로(써)이고, (20 나)는 자격격의 ‘-(으)로(서)이다. ‘-으로(써)’와 ‘-으로(서)’는 형태적 관계가 ‘-(으)로’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말레이시아어에서는 형태적 대립 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다.

5. 맺음말

본고에서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와 한국어 조사의 대응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앞에 제시된 도표를 다시 가져와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격조사	문법격 조사	어순
	의미격 조사	전치사구, 어휘
보조사		
접속조사		접속사

<표 6. 한국어 조사와 말레이시아 조사의 기능 비교>

한국어 격조사 중에서 문법격 조사에 대응되는 문법적 형태는 말레이시아어에는 없고 문장 어순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의미격 조사와 보조사는 말레이시아어의 전치사구와 어휘에 대응이 되며, 접속 조사는 접속사에 대응이 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목적을 두고 거기에 필요한 언어 대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수행된 대조 분석은,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와 한국어의 조사, 특히 의미격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두 기능어 사이의 대응 관계를 살펴 보았다. 한국어 의미격 조사는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분류가 가능하고, 그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의미적 대립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어에서도 제한된 부분에서 형태적 특징을 전치사의 분류에 적용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전치사의 의미적 대립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용된 기준은 [+Location], [+Time], [±Animate] 등이다. 이들 기준에 의해서 장소와 시간의 대립 관계가 ‘di’와 ‘pada’, ‘dari’와 ‘ke’, ‘dari ~ ke’와 ‘dari hingga (ke)’ 등으로 나타나며, [±Animate]에 의해서 ‘daripada’, ‘kepada’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대립 관계는 한국어 의미격 조사와의 일정 정도가 대응 관계가 성립되었다. 다음은 (3)에서 제시된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와 한국어 조사의 의미적 대응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20) 말레이시아어 전치사와 한국어 조사의 의미적 대응 관계

의미 범주	전치사	의미 자질	조사
가. 장소	di	[+Location] [-Animate]	‘-에’(정적 처격) ‘-에서’(동적 처격)
나. 시간	pada	[+Time] [-Animate]	‘-에’(정적 처격)
다. 출발점	dari	[+Location] [+Time]	‘-에서’(출격) ‘-부터’(시간)
	dari ~ ke	[-Animate]	‘-에서/부터 ~ -까지’(장소/시간)
	dari ~ hingga (ke)	[+Time] [-Animate]	‘-부터 ~ -까지’(시간)
	daripada ~ kepada	[+Animate]	‘-에게서/(으)로부터 ~ -까지’
라. 방향이나 목적지	ke	[+Location] [-Animate]	‘-에, -(으)로’(방향격) ‘-까지’(목적지)
	hingga/sampai	[+Time] [-Animate]	‘-까지’

마. 대상	kepada	[+ Animate]	‘-에게’(여격)
	daripada	[+ Animate]	‘-에게서’(출격) ‘-에게서부터’(탈격)
바. 자격	seperti/bagai ...		‘-(으)로서/(으)로’(자격격)
사. 도구	dengan		‘-(으)로써/(으)로’(도구격)

위의 도표에서 말레이시아어의 장소와 한국어의 처격이 대응이 되지만 한국어와 같이 정적 처격과 동적 처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어에서는 장소와 전치사가 대립 관계로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시간이 정적 처격에서 확장된 의미로 나타나고 처격의 하위 분류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어에서는 출발점과 방향이나 목적지가 대립 관계로 나타나면 한국어에는 출격과 방향격으로 대응된다. 말레이시아어에서 [+ Location]과 [+ Time]의 의미 자질에 의해서 장소와 시간의 대립 관계가 ‘di’와 ‘pada’에 의해서 실현되고, [±Animate]의 대립 관계가 ‘dari’와 ‘daripada’, ‘ke’와 ‘kepada’에 의해서 실현된다. ‘dari’와 ‘ke’는 한국어의 출격과 방향격에 대응되며, ‘daripada’는 출격과 탈격, ‘kepada’는 여격에 대응이 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한국어교육 자료 총서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용하. 2010. 격과 조사. In *2010 국어학회 제37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서울: 국어학회.
- 김정숙, 정명숙, 김유정. 2006. *초급 한국어 쓰기*. 서울: (주)한림출판사.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0/2007. *한국어 1*. 서울: (주)문진미디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1992/2006. *한국어 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해영, 황인교, 한상미. 2006. *초급 한국어 말하기*. 서울: (주)한림출판사.
- 임동훈. 2008. 조사의 통사론과 의미론. In *2008 국어학회 제35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서울: 국어학회.
- 임홍빈. 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제24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1-62.
- 한국어문화연수부 편. 1986/2006. *한국어 1*.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 한재영 외. 2008. *한국어 문법 교육*. Edited by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 교육 총서4*. 과주: 태학사.
- Nik Safiah Karim. 1995. *Malay Grammar for Academics and Professionals*.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Nik Safiah Karim et al. 2008. *Tatabahasa Dewan (Edisi Ketiga)*.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Rou Seung Yoan and Kim Keum Hyun. 2004. *Bahasa Korea*. Bangi: Penerbit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 Young-Mee Cho et al. 2000.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Abstract】**The study of the particles and prepositions in Korean and Malaysian languages for Korean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the perspective on contrastive linguistics.**

PARK Jun Seok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University of Malaya)

It is relevant to mention that Malaysia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are not from the same family, that is, they are not typologically the same languages. However, to what extent these languages are different might be a concern not only for the linguists but also for educationists and teacher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relation to syntactic structure, Malaysian language is dependent on the order of word and is one of the Austronesian Languages Family. Korean, on the other hand, has particles, endings, and honorific systems. The languag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Altaic family, but there are views that there is no such strong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the Altaic languages, hence, Korean can be identified as ‘unknown’ language for Family.

From the researcher’s observation as linguists and lecturers of Korean at University of Malaya most of the students have shown difficulties in learning Korean particles, endings, and the honorific systems. Perhaps one of the most difficult items for learning Korean is particles system and endings for the Malaysian speakers. It therefore might be helpful to study this issue from a comparative and contrastive linguistics perspective. If effective methods are developed based on these theories, the learning of Korean is expected to be easier.

The Korean particle system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i.e. Case markers, Postpositions, and Conjunction particles. These parts have their unique functions and meanings at the particles’ system. In comparative and contrastive linguistics, there is a similar grammatical structure, i.e. Preposition systems, in Malaysian language comparing to Korean particle system as follows,

Korean Language		Malaysian Language
Case markers	Grammatical cases	Order of word
	Semantics cases	Prepositional phrases, words.
Postpositions		
Conjunction particles		Conjunctions

<Table 1. The comparison of functions of particles and prepositions in Korean and Malaysian>

So it is an effective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of comparing the particles and prepositions in Korean and Malaysian languages for Malaysian learners of Korean. Finally, the researcher will provide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particles at beginning level in Korean language for Malaysian speakers on perspective of comparative and contrastive linguistics.

